

“마무리” vs “역전발판”...추석연휴 앞두고 ‘호남대전’

민주 경선 주자 일제히 호남방문
 이재명 “사실상 승부 마무리 짓겠다”
 이낙연 “역전의 발판 마련하겠다”
 정세균·추미애·박용진·김두관
 돌풍의 계기 마련 호남공약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치열한 ‘호남대첩’을 펼친다. 호남이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이들은 호남 경선에 앞서 호남 표심을 미리 다지겠다는 의지로, 호남에서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총정권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대세론’을 형성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구·경북(11일), 강원(12일) 순회 경선이 끝난 뒤 15~16일, 18~19일 나흘 간 호남 방문 일정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호남지역 공약도 오는 12일 또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연휴(18~22일)를 앞두고 호남을 방문해 지지세를 굳히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이 지사의 캠프 총괄을 맡고 있는 우원식·정성호·조정식 의원 등은 9일부터 광주와 전남, 전북을 나눠 돌며 바다 조식을 다니면서 이 지사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 지사 측은 총정권 경선에서 대세론을 형성한 만큼 대구·경북과 강원 이어 1차 선거인단 투표와 경선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호남 경선에서 사실상 승부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총정권 경선에서 ‘더블 스코어’ 차이를 잡아야 할 이낙연 전 대표도 자신의 텃밭인 호남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호남 공약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대구·경북과 강원 지역 순회 경선과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선제적으로 호남을 찾아 지역 공약을 앞세워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지역 케이발방송 인터뷰 녹화를 한 뒤 핵심 지지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1차 선거인단 투표(12일)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 방문에 이어 대구·경북, 강원 순회 경선에 집중할 뒤 오는 16~18일 사흘간 다시 광주와 전남, 전북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호남 출신의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장관,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도 호남에서 돌풍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호남 공약에 공을 들일 방침이다.

이처럼 민주당 대권 유력주자들이 추석 연휴 전 ‘호남대첩’을 베풀고 있는 것은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다 선거인단 표심을 호남 민심이 좌우하는 만큼 호남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남의 대의원·권리당원, 일반 선거인단 규모는 수도권(30만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다. 또한, 사실상 경선판을 좌우할 것으로 평가되는 1차 선거인단 64만명 중 호남 및 호남 연고 선거인단이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총정권 경선에서 압승한 이 지사와, 이를 쫓는 이 전 대표로서는 호남 경선이 이번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꼽힌다.

이 지사는 ‘총정 대세론’을 앞세워 1차 선거인단 투표와 호남 경선에서 승기를 굳히려 하고, 이 전 대표로서는 호남 연고 비중이 많은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거두고 호남 경선에서 승리해야 만 경선을 결선투표까지 끌고 갈 전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호남지역 경선 선거인단만 20만명이 넘어 총정과 대구, 경북, 강원 선거인단을 합친 것 보다 두 배가 많고, 선거인단도 호남민과 호남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만큼 호남 표심이 이번 경선을 좌우할 수 있다”면서 호남 민심이 그동안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유력 대권주자들의 호남 민심 잡기가 설 연휴를 앞두고 더욱 치열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주시민 7000여 명이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대론 정권 재창출 어렵다”

경제부흥책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7일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흥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금부터 정책과 메시지를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적 고민은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겠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진보적 정책이든 보수적 정책이든 활용하겠다. 경쟁 후보들 정책도 과감

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총정 경선에서 내리 완패한 것을 두고 “제 소회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총정권 투표 결과는 제게 아픈 것이었다.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이 무엇이었던지 깊게 고민하고 많은 말씀을 들었다. 부족함은 채우고 잘못은 바로잡겠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총정권 권리당원 절반 이상 이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가장 영광스러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마음에 걸린다”며 “그렇게 된 데는 제 책임이 크다. 당 지도부도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로

정권 재창출을 낙관하기 어렵다. 후보들과 당 지도부의 결단이 절실한 요구된다”며 “저부터 비싼 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투표율이 50%에 미달했다. 그것은 뼈아프다”며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변론 의혹을 제기한 것도 네거티브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네거티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런 오해도 받지 않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정세균 “이낙연과 단일화 없다...이재명 리스크 모두 알아”

외교·안보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7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일축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 ‘정세균TV’에서 외교·안보 공약 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완주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리스크가 큰 후보라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지사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자타가 알

고 있지 않다. 저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지난 주말 진행된 총정권 경선 결과에 대해서 “충남에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실망을 줬다”며 “1차 슈퍼유니크는 선거인단이 대거 참여하는데, 그들의 표심은 어떨지 긴장한 가운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총정권 경선 이후 전략을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따로 전략을 수정할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이날 외교·안보 정책으로 미중 사이에서 ‘역(逆) 안미경중(安美經中)’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 안

미경중”이라며 “안보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경제는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한다는 역발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외교·안보를 둘러싼 곡물 분열과 남남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 여야가 참여하는 ‘외교안보 독트린(선언)’을 발표하겠다고 구상도 내놨다.

남북관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계로 바꾸고,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 프레임으로 ‘리셋’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밖에 인구 동향을 감안해 단기 징병 인력과 부사관 중심 모병 인력을 혼합하는 식으로 군을 재편하고, 기술 투자를 통해 방산 수출 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연합뉴스

전재수, 이재명 공개지지...친문 쏠림 가속화?

부산과 친문 재선...이광재 측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문 인사 중 한 명인 전재수 의원이 7일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 지사와 거리를 뒀던 친문계에서 공개 지지가 나오면서, 경선 초반 연승으로 탄력을 받은 이 지사로서의 친문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과 친문 재선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은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을 이뤄내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할 사람”이라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해 “반드시 정권 재창출과 4기 민주

정부를 만들 사람이다. 아픔을 겪은 사람이고,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며 “부산에서 먼저 원팀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의 이재명 캠프 추가 합류가 이어질 것이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노력하겠다. 부울경, 특히 부산은 제가 오늘 이 지사 지지를 선언하면서 대총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지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저를 지지해주고 함께해줘 뜻깊다”고 환영했다. 당내에서는 친문계 모임인 ‘민주주의4.0’ 소속이자,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 의원 캠프에서 활동했던 전 의원이 이 지사를 공개 지지한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상장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